

##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조진기\*\*

- I. 서론
- II.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
- III.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논리
  - 1. 계통을 통한 동화와 일본인 만들기
  - 2. 차별로부터 탈출과 일본인 되기
  - 3. 계몽주체의 부재와 내선결혼의 실패
- IV. 결론

### 【요 약】

일제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민족동화 정책을 통하여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그것은 내선일체 정책으로 나타났고, 그 실천적 방법이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이었다. 창씨개명이란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내선결혼이란 문제는 개인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일제의 동화정책은 내면화되면서 개인적 사랑의 실천이란 이름으로 위장될 수 있었다.

---

\* 이 글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처럼 내선결혼은 내선일체의 한 방법으로 강조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선결혼 소설이 쓰였다. 그런데 이 시기 내선결혼에 대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은 상반된 논리적 기반에서 출발했다. 일본인은 미개한 조선인을 계몽하여 완전한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선결혼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고, 그와는 달리 조선인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선결혼을 통하여 보다 철저히 내선일체에 참여하여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그대로 이 시기 내선결혼소설에 나타나고 있다.

내선결혼이 성공하는 경우는 동화의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사랑을 문제로 하고 있으며, 차별로부터 탈출의 논리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문제로 하고 있다. 이광수의 작품에서는 두 가지 다른 논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는 정인택의 작품이다. 또 내선결혼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모두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문제로 하고 있으나, 결혼에 대한 내적 논리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시국적인 소재만을 취하였을 뿐 내선일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애소설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설야와 이효석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 서론

일제말기 문학은 일제의 국책을 수용하는 국책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는 일찍부터 민족동화정책<sup>1)</sup>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말살을 기도했다. 이러한 일제의 동화

1) 일본의 대조선 민족동화정책은 皇領 초기 동화정책시대(1910-1919)에서

정책은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내선융화’의 단계를 넘어 터무니없는 동조동근론<sup>2)</sup>을 앞세워 ‘내선일체’로 이어졌고, 그 실천적 과제로 제시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이었다. 그런데 창씨개명이란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내선결혼이란 표면적으로는 내선 남녀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일제의 동화정책은 내면화되고 개인적 사랑의 실천이란 이름으로 호도될 수 있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랑이란 국경도 없다’는 말처럼 내선 남녀의 사랑과 사랑의 결실로써 내선결혼은 개인적인 것이며, 탈이념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말기에 이루어진 내선결혼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보다 일제의 지배정책에 의하여 강제된 측면이 보다 우세했다. 따라서 일제말기 소설 가운데 내선연애나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경훈과 이상경, 그리고 심진경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이경훈은 이광수의 친일문학에 대해 폭넓게 다루면서 내선결혼 문제를 ‘내선일체의 소설화’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sup>3)</sup> 특히 그는 이광수의 「마음이 서로 만나고서야」를 춘원의 전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향소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내선결혼 소설을 이광수의 소설에만 한정하고 있어 내선결혼을 본격

비롯하여 황령 동화정책 정착시대(1919-1932)를 거쳐 동화정책 강화완결시대(1932-1945)로 전개된다. 保坂祐二,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分析』, J&C, 2002, 27-46쪽 참조.

2) 일제는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근거로 일본의 시조 天照大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동생 素戔鳴尊(수사노오노 미코토)이 조선에 강림하여 조선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민족적으로 같은 조상이며 같은 뿌리(同祖同根)라고 주장하면서 ‘내선일체’는 고대로의 복귀라고 주장했다.

3)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170-298쪽 참조.

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경은 일제말기에 쓰인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을 내선결혼 긍정론과 내선결혼 부정론이라는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검토<sup>4)</sup>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선결혼 소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선결혼소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작가적 태도를 규명하고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심진경의 지적<sup>5)</sup>처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작가의 태도를 단순화시키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심진경은 “내선결혼은 식민주체의 식민/탈식민의 상상력이 남녀의 애정문제를 둘러싼 인종, 민족, 문화, 관습, 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식민지 모순을 중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허구적 형식의 하나”<sup>6)</sup>라고 규정하고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 가운데서 식민지 남성과 제국 여성의 사랑을 다룬 소설로서 이광수와 한설야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선결혼소설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내선결혼소설들 가운데 특수한 경우(식민지 남성과 제국 여성의 연애 혹은 결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의 다양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를

4) 내선결혼의 긍정론은 ① ‘피’의 동일성에 기반을 둔 내선결혼과, ② 사라질 구세대와 낡은 인습을 배격하고 새로운 세대의 결혼관으로 내선결혼을 주장하는 유형을, 내선결혼 부정론은 ① 숙명적인 ‘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경우와 ② 기질의 차이를 낳는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내선결혼을 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김재용(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117-152쪽 참조.

5)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민족문학사연구』, 제28집, 2005, 166쪽 참조.

6) 심진경, 위의 논문, 165-166쪽.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내선결혼이 내선일체의 실천적 방안으로 제기된 사정을 점검하고 내선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소설과 내선결혼이 실패에 이르는 소설들을 통하여 내선결혼에 대한 태도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내선결혼의 내적 논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

일제말기 국책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민족동화정책이었다. 이 민족동화정책은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보다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내선일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조선인을 일본 내지인과 완전히 동화시켜 조선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1936년 8월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온갖 법령과 관제조직을 통하여 이전까지 강조해 오던 ‘내선융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선일체’를 주창하기에 이른다. 특히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창씨개명과 내선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나미(南)는 ‘내선일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념에서 비로소 내선일체가 가능한 것이다. 즉 내선일체를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동양의 현상세계의 환경으로부터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직 그 귀착점은 반드시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내선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중략) - 내가 늘 역설하는 것은 ‘내선일체’는 상호 손을 잡거나 모양만 융합하는 것처럼 그런 미온적인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 자는 놓으면 또다시 갈라진다. 물과 기름도 역지로 혼합하면 융합된 형태가 되지만 그래서

안 된다.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가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sup>7)</sup>

여기에서 미나미(南次郎)가 ‘내선일체’란 ‘상호 손을 잡거나 모양만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가 일체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인과 조선인을 표면적(모양)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창씨개명이라면, ‘피도 살도’ 일체가 되게 하려는 것이 내선결혼이다. 따라서 ‘내선결혼’을 통하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혼(魂)의 일체, 피(血)의 일체를 강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 일체는 터무니없는 ‘동조동근론’을 내세워 내선일체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나미(南)의 ‘내선일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39년 11월 <氏設定에 관한 제령(19호)>이 공포되고, <조선민사령>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사법 영역에서 내선일체의 구현이 완성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sup>8)</sup> 그러나 일체의 ‘내선일체’ 정책이란 조선인으로부터 황민화에의 내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조선인을 철저하게 차별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미나미 총독이 ‘내선의 무차별 평등’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어디까지나 이민족임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 내지인은 민도(民

7) 鈴木裕子, 『從軍慰安婦內鮮結婚』, 未來社, 1992, 84쪽 재인용.

8) 사법의 영역에 있어 내선일체의 구현에 부쳐 (1)氏名の 공통, (2)내선통혼, (3) 內鮮緣組의 3항목을 들 수 있는데, <이름(名)>은 소화12년(1937) 이래 반도인도 내지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선통혼이 해마다 격증하여 반도인이 내지인의 양자가 되는 수도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이번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 전술한 3항목이 전부 실현을 보게 되어 사법상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길은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内地人式氏の設定に就き總督談』, 鈴木裕子, 위의 책, 86쪽 참조.

度)에서 뒤떨어진 조선인을 계몽하고 인도하여 내지인과 조선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는 있지만 결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차별의식을 내포<sup>9)</sup>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반하여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은 미나미 총독의 ‘무차별 평등’을 믿고 내선일체야말로 ‘차별로부터 탈출’<sup>10)</sup>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내선일체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했다. 일제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로 ‘민도의 상위’를 일관되게 강조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황민화의 정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을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현영섭(玄永燮)이었다. 그는 내선일체론의 3대서<sup>11)</sup>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朝鮮人の進むべき道)』에서 “조선인은 완전히 일본민족이 될 운명에 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sup>12)</sup>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멸망에 빠트린 고유의 모든 것, 이를테면 조선어, 조선옷, 조선의 가옥, 형식적 조상숭배, 조선역사 등을 청산하고 정신적으로 일본인적 감정에 침윤될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총독과의 면담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하여 ‘조선어 사용의 전폐’를 건의했다. 이러한 현영섭을 일본인조차 ‘일본에 혼을 팔아버린 진정한

9)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 政策』, 未來社, 1992, 167쪽 참조.

10) 미야다(宮田節子)는 일본 측의 ‘동화의 논리’와 조선 측의 ‘차별로부터 탈출’의 논리가 내선일체의 추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밝히고 “참된 내선일체가 되려면 내지인의 조선인에 대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내지인은 조선인이 정말 일본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가능한 것이라 할 때, 일본 측의 동화의 논리란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한 동화의 논리와 조선의 ‘차별로부터 탈출’이라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상호모순과 상극의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宮田節子, 앞의 책, 173쪽 참조.

11) 당시 내선일체를 주장한 대표적인 글로 현영섭의 『朝鮮人の進むべき道』, 金斗植의 『防共戰線勝利の必然性』, 金文輯의 『臣民の書』로 이를 내선일체의 3대書라 했다.

12) 현영섭,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連盟, 1939, 29쪽.

매국노<sup>13)</sup>라고 조소했지만 이러한 극단적 사고의 밑바닥에는 ‘차별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제의 ‘차별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내선일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1940년 1월에 <내선일체사>가 설립되고 잡지 『내선일체』를 간행했는데, 그 창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이를 충실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적 국민 결합(거국일체)을 철저히 도모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그 방법으로는 ‘내선일체’라는 월간소책자를 간행하여 내선일체의 실천화를 창도하고 아울러 내선결혼을 촉진하는 외에 강연회, 좌담회, 전람회, 영화회 등을 통하여 선전, 알선한다.<sup>14)</sup>

잡지 『내선일체』는 실질적으로 내선일체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창씨개명과 함께 내선결혼을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창씨 상담부와 내선결혼 상담부를 두어 운영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에서는 내선일체의 강화를 위해 12항목<sup>15)</sup>에 이르는 <시설계획>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철저히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내선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내선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국민총력 조선연맹 총제를 겸한 총독 미나미의 이름으로 표창장과 기념품을 증정하여 내선결혼을 독려했다. 이처럼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편승하여 내선결혼이야말로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는 길임

13) 宮本節子, 앞의 책, 162쪽.

14) 「내선일체 실천사 창립취지서」, 『내선일체』, 창간호, 1940년 1월, 19쪽.

15) 鈴木裕子, 앞의 책, 81-2쪽 참조.

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데면 김용제는 내선일체란 내선인의 생활의식과 형체가 동화, 동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국신민화를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했다. 그는 내선인 사이에는 언어, 풍속, 습관, 문화, 전통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에 내선일체운동은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내선결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선결혼을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 조건<sup>16)</sup>을 제시하면서 “내선일체의 완전체는 내선결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김용제의 주장은 조선민족을 ‘피’의 단계에서부터 일본민족으로 동화시킴으로써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기도<sup>17)</sup>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내선결혼이란 ‘피’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말살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강요에 따라 내선결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내선결혼이 강요되기 이전인 1937년에 이미 1,206쌍이나 되었고, 본격적으로 내선결혼이 실시되던 1941년에는 1,416쌍으로 증가하여 1941년 현재 총 5,747쌍<sup>18)</sup>이 내선결혼을 했다.

16) 1) 국가의지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한 가능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결혼 수속 및 호적법상의 편의, 2) 사회적 인식의 시정 또는 상식화의 문제. - 내선결혼을 이단시하는 경향에 대한 교화, 3) 자녀를 둔 부모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녀의 장래 행복을 믿어주는 일, 4)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선청년 남녀 당사자 간 연애나 결혼에 대한 태도. 김용제, 『內鮮結婚我觀』, 『내선일체』, 1940. 창간호, 57-8쪽.

17) 鈴木裕子, 앞의 책, 76쪽.

18) 내지인과 조선인과의 배우자 통계표에 따르면 대정12년(1923), 245쌍이었던 것이 소화12년(1937)에는 1,206쌍으로 증가하였으며, 1941년에 이르러 내선결혼자의 총 누계는 5,747쌍이었다.(保坂祐二, 앞의 책, 208쪽) 그런데 1937년까지 통계에서 내지인으로 조선부인을 처로 한 경우가 664쌍이고 조선인으로 내지인을 처로 하고 있는 경우가 472쌍이며, 조선인으로 내지인의 집에 입양된 것이 48명, 내지인이 조선인의 가정에 입양된 것이 22명이었다. 이를 다시 직업에 따라 분류하면 농업 및 목축업이 158쌍, 어업 및 제염업 30, 공업 355, 공무 및 자유업 294, 기타 유업자 86, 무직

## III.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논리

우리 소설에서 일본인과의 결혼을 다룬 소위 ‘내선결혼소설’의 효시는 이인직의 「貧鮮郎의 日美人」(『매일신보』, 1912. 3.)이다. 이 작품은 가난한 한국인 남편과 동거생활을 하는 일본 여인 사이의 델리케이트한 심리와 생활고로 인한 갈등을 그린 작품이지만 일제의 민족동화정책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선결혼(연애)은 채만식의 「치숙」, 「냉동어」, 김사량의 「빛 속에서」, 「광명」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이들 소설 역시 내선결혼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제말기의 내선결혼 소설과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일제말기에 접어들면서 내선결혼소설은 국책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내선결혼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내선인의 사랑(결혼)을 다루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와 연애 도중 어떠한 장애를 만나 과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도 그 내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때 내선결혼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선결혼을 문제로 하는 경우에도 내지인 남자(남편)/조선인 여자(아내)의 경우와 조선인 남자(남편)/내지인 여자(아내)인 경우에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선결혼에 대한 양상을 네 가지 양태<sup>19)</sup>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및 직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2쌍이었다. (『내선일체』, 창간호, 87쪽 참조.) 그런데 1941년도의 내선결혼자의 경우 조선인 남편-일본인 부인이 1,303쌍이고, 일본인 남편-조선인 부인은 113쌍이었는데, 이를 두고 당국에서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본식 훈육은 남편이 내지인인 경우보다 아내가 내지인인 경우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바람직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新しき朝鮮』, 75쪽)고 하여 내선결혼을 통하여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민족동화를 피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내선결혼이 성공하는 경우 <내지 남자/조선 여자>와 <조선 남자/내지 여

### 1. 계몽을 통한 동화와 일본인 만들기

이광수의 「마음이 서로 만나고서야(원제, 心相觸れてこそ)」<sup>20)</sup>는 작가의 말<sup>21)</sup>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동근론에 바탕을 두고 내선결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권장하는 내선결혼 소설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타케오-석란, 충식-후미에 사이에 전개되는 두 개의 사랑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타케오-석란의 사랑이고, 타케오-충식의 우정이 또 다른 층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타케오-석란, 타케오-충식의

---

자>를, 내선결혼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내지 남자/조선 여자>와 <조선 남자/내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심진경이 식민지 남성과 제국 여성의 사랑을 식민/탈식민이란 논리로 단순화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작품에서 내선결혼이 실패하는 경우 <내지 남자/조선 여자>를 다룬 작품은 없다.

- 20) 이광수의 「心相觸れてこそ」를 이경훈은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서로 만나고서야」로 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아 여기에서는 「마음이 서로 만나고서야」라고 번역하고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줄여서 표기한다.
- 21) “천하를 다스리시는 천황의 신, 그리고 군과 나란히 야마토(大和)도 고구려도 하나가 되기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씁니다. 야마토와 고구려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힘으로 또는 싫어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며 융합된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같은 神의 일족(氏子)입니다. 같은 大君의 赤子입니다. 야마토와 고구려가 융합하지 않고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보통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슬픔을 가진 범부에게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마토도 고구려도 小我를 잊고 大我에 殉하자는 결심만 있다면, 서로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될 인과에 눈뜨기만 한다면, 역시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知幻即離(如幻即離)라고나 할까요. 눈뜨는 일이 낫습니다. 이 작고 변변치 않은 이야기가 내선일체의 대업에 티끌만한 공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나의 바람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광수, 「작가의 말」, 이경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9쪽.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작품집을 사용하고 인용 뒤에 쪽수만 밝힌다.

관계는 계몽주체-계몽대상이라는 관계이며 동시에 일본/조선, 제국/식민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경계로 파악할 수 있다.<sup>22)</sup> 그러므로 이 작품의 행위 주체인 타케오가 석란을 비롯한 그녀의 가족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케오는 등산을 하다 조난을 당하여 충식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충식의 집에 머물면서 석란의 간병을 받게 된다. 타케오가 의식을 찾아 처음으로 조선풍의 천정과 감색 치마에 하얀 옥양목 저고리를 입은 석란을 보고, 또 자기의 누이가 조선 이불을 덮고 조선옷을 입고 있으며, 자신 또한 조선옷이 자기에 몸에 감겨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일순간 불쾌함조차” 느낀다. 그런데 석란의 일본어가 훌륭했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타케오의 의식에는 조선옷/일본어의 대비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거부와 일본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남성=식민자=제국에 의해 비로소 대표되는 여성=피식민자=종속국<sup>23)</sup>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변형으로 일본=중심, 조선=주변이라는 차별적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 순간 낯선 곳에서 오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의 의식 속에 조선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 학생들이 교실이나 어디서 자기들끼리 조선어로 술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타케오는 한 대 패주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을 떠올렸다. 뭔가 하등한 노예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메스메스한 것이었으며, 내지인끼리 모인 곳에서는 자주 조선인 학생의 버릇없는 일이라든지, 건방진 것, 편벽된 근성 등을 짚아내려던 것이었다.<sup>24)</sup>

22) 심진경, 앞의 논문, 170쪽 참조.

23) 강상중(임경덕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2004, 90쪽.

24) 이광수, 위의 작품, 17쪽.

이처럼 조선인과 조선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타케오가 충식의 가족이 보여주는 친절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고 진정한 내선일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계몽을 통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게 된 데서 비롯된다. 타케오는 석란의 아버지 김영준과 충식, 그리고 석란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특히 김영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그 이유는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표상되는 김영준을 계몽하여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선인 모두를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타케오의 아버지 히가시 대좌가 “조선인을 진실로 천황의 신민으로 하기 위해서는 김영준같은 사람의 마음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타케오 역시 김영준에게 적극적으로 동화의 논리를 펼치게 된다. 타케오는 누이동생 후미에가 조선옷을 입고 충식의 집을 찾아 간 것을 기회로 내지인과 조선인이 결국 다를 바 없음을 김영준에게 토로함으로써 내선일체의 당위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김영준 역시 타케오 남매를 ‘자식처럼 귀엽다’고 대답함으로써 내선일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김영준의 태도에 고무된 타케오는 충식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내선일체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어이 김 군,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가 되자. 칠천만과 이천만이 정말 하나가 되자. 지금까지의 잘못은 우리들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더욱 살기 좋은 새롭고 높은 문화를 산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미나미(南) 총독이 말하는 내선일체라는 것도 그 일이 아닐까. 하지만 요는 우리들 젊은이들에게 있지 않을까. 군은 어떻게 생각하나?<sup>25)</sup>

25) 이광수, 위의 작품, 40쪽.

이러한 타케오의 주장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동화된다는 것은 살기 좋고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사랑이고, 정(情)이라고 한다. 따라서 타케오가 석란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선일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타케오는 후미에와의 대화에서 “내지인과 조선인이 정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선일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거기에는 일본인이야말로 조선인에게 살기 좋고,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혜자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타케오가 출정을 하면서 충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내선일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석란에게 청혼할 계획이었지만 부모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청혼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타케오가 전쟁터에서 실명하게 되면서 타케오와 석란은 결혼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상경의 지적<sup>27)</sup>처럼 내선 남녀 사이에 대등한 관계의 결혼이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석란의 입장에서

26) 여기에서 부모로 대표되는 일본의 우생학계에서는 ‘일본민족 순혈론’을 주장하였는데, 小熊英二는 “잡혼은 많은 경우 성충동에 의한 것이며, 잡혼의 부부는 그 민족의 평균보다도 사회적 지위, 지능이 열등하고 부모의 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가족 해체까지 부른다. 또 혼혈아는 적응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결핍되어 대를 거듭하면서 원주민에 가까워지든가, 멸종의 민족이 되어 지배민족과는 멀어지고 나아가 성격적 의외심, 사대주의, 무책임, 의지박약, 또는 허무주의적, 성격파산적 경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앞의 논문, 122쪽 재인용.

27) 그럴싸한 내선일체의 이론을 서로 납득했다더라도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여 내선결혼을 이루는 데는 일본 남성의 ‘실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 (중략) - 대등한 위치의 남녀가 연애를 통해 피와 살을 섞는 내선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이 식민지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실명’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일본 남성과 조선 여성의 ‘연애’는 불가능했다. 이상경, 위의 논문, 134-5쪽.

는 실명한 타케오와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희생을 발판으로 진정한 황국신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기에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후술될 것임.)

사실 이광수의 「마음이」에서는 내선결혼을 긍정하면서 주인공 타케오를 통하여 조선인을 교화하고 계몽하여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사이에 전개되는 사랑은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선 여성을 철저하게 계몽하여 민족동화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확인하게 된다.

## 2. 차별로부터 탈출과 일본인 되기.

이광수의 「마음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는 김영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은 춘원 자신의 변모(변절)를 보여주고 있는<sup>28)</sup>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병합 이래 해외에서 방랑을 하다 만주사변 직후 길림에서 잡혀 10년 징역을 받고 작년에 가출옥하였으며, 배일가(排日家)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역사에 대하여 정통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를 지배할 자격을 갖춘 나라는 일본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준은 일본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깎아내리고 일본인이라면 누구든지 미워하는 그런 배일가가 아니다. 그는 일본의 역사도 잘 알고

28) 이경훈은 김영준을 춘원 자신의 투영으로 규정하고 “이 작품은 일종의 전향소설로서의 요소를 내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270쪽.

있다. 특히 명치유신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연구가 깊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좋은 점도 단점도 잘 이해하고 있다. 조선인 중에 『신황정통기』나 『산양외사』나 『고사기』, 『일본서기』를 독파한 사람은 그 이외에 그렇게 많지 않다.<sup>29)</sup>

이처럼 일본의 고대사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다는 것은 일체의 내선일체를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는 지나사변이 발발하자 “아시아 제민족 중에서 영도권을 가질만한 민족은 일본 이외는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영도되는 제민족의 이익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가 불령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조선인이 식민지의 토착민으로써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입으로만 주장하는 내선일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내선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로부터 벗어나 평등하게 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인은 마음을 열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려야 하며, 조선인은 스스로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어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는 것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그대로 충식과 석란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충식과 석란은 출정하는 타케오를 환송하고 조선신궁에 참배를 하면서 타케오의 무운과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 온 충식은 아버지 김영준에게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조국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조국을 주세요. -(중략)- 소자도 군의(軍醫)를 지원해서 출정하고 싶습니다. 일본을 제 조국으로 정하고 처음으로 충의를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김영준은 “비상한 결의”를 하고 지원병으로 나가는 것을 승낙한다. 여기에서 충식과 김영준이 보여주는 행동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함

29) 이광수, 앞의 작품, 36쪽.

으로써 일본의 차별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석란이 간호부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간호부 석란이 전장에서 실명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타케오와 결혼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일본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케오가 장님이 되어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임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군을 선무하는 공작에 동행하게 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성스러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자기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란의 행동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차별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행동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는 길이었다.

한편 정인택의 「껌질」은 사라질 구세대와 낡은 인습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피의 동일성을 내세우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선결혼론을 펼친 작품”<sup>30)</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 남자와 내지 여자의 결혼을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이광수의 「마음이」와는 달리 계몽주체/계몽대상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성은 이미 조선인에 비하여 민도가 높기 때문에 조선인에 의하여 계몽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조선인 남성에 의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 관습이나 일본인에 대한 몰이해, 나아가 내선일체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놓여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낡은 관습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은 차별로부터 탈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바로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껌질」의 주인공 학주는 내선결혼을 한 인물이다. 학주는 동생

30) 이상경, 앞의 논문, 138쪽

으로부터 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편지를 몇 차례 받지만, 그때마다 새 장가 들기를 강요하는 아버지의 속임수라고 믿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또다시 전보를 받고 임종이라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 고향에 가지만 끝내 아버지가 새 장가 갈 것을 강요하자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고 몰래 서울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일본인 아내 시즈에의 인물됨이 긍정되는 것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에 대하여 주인공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시골로 내려가려는 학주에게 시즈에는 며느리로서 “임종만은 지켜봐야죠.”라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갈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저는 저예요”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자식(며느리)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시즈에의 간청을 거절하면서 “풀이 죽은 아내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눈에 아른거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가 하면 “학주 녀석이 눈이 높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며느리다, 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텐데...”라고 확신할 만큼 시즈에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착한 아내를 아버지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태생도 모르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의 집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슬픈 일임에 틀림없었다. 그래도 시즈에는 그 슬픔을 혼자 가슴에 묻고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커녕 오히려 신분이 낮은 자신에게는 과분하다면서 학주에게 온갖 애정을 쏟으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sup>31)</sup>

여기에서 시즈에야말로 일본의 전통적 양처상(良妻像)으로 그려

31) 정인택, 「겹질, 김재용(편역),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2003, 141쪽.

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주에게 아내란 계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스스로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는 일이 아내를 위해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학주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낡은 껍질을 깨트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 학주가 시즈에를 알게 된 것은 4년 전으로, 2년 전 아들이 출생하여 시즈에와 함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내려가 내지인과는 풍속도 습관도 다르고, 집안도 천하고 조상도 모르는 여자와는 같이 앉지 못하겠으니 집에 들일 수 없다, 가문의 수치다, 라며 문턱도 넘지 못하게”<sup>32)</sup>하자 소리도 지르고, 애원도 하고, 울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들은 폐렴으로 사망하자 아버지도, 고향도,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새 장가들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묶어두고 있는 껍질도 이미 그 견고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시즈에와의 결혼을 실질적으로 용납하기에 이른다.

...나를 닮아 너도 고집이 세니 너희들을 억지로 헤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도 포기했다. 그 대신 내 말대로 명목상 만으로라도 황 씨 딸과 결혼해라. 결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경성에서 살고 싶으면 경성에서 살아. 황 씨 딸은 나와 네 형이 맡으마,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느냐?...

시즈에를 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황 씨 딸에게 그런 벌 받을 짓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주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걸 꼭 참았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학주의 두 눈이 빨갱게 충혈되었다.<sup>33)</sup>

여기에서 처음 아버지가 내지인과 결혼을 거부했던 것은 풍속이

32) 정인택, 위의 작품, 141쪽.

33) 정인택, 위의 작품, 146쪽.

나 습관과 같이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나, 학주의 고집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마침내 버려야 할 낡은 인습의 소유자로 전락해 버린다. 그 결과 아버지는 시즈에와 황 씨 딸 모두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일에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으로 단죄 받아야 할 존재<sup>34)</sup>가 된다. 그런 점에서 학주는 “시즈에를 첩으로 만들고, 황 씨 딸에게 벌 받을 짓”을 하는 아버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취해야 할 태도란 단순히 “아버지를 죽일 것인가, 시즈에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에 머물지 않고 보다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와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 이 점에 대하여 학주 스스로도 “그 심연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잡다한 시사, 제시, 의문이 존재하고”<sup>35)</sup>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겠다는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학주가 아버지의 마지막 타협안까지 거부하고 몰래 서울로 올라오는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 시즈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역으로 나가는 학주에게 동생 용주가 따라오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나 경성에 갈 거야.”

“공부하고 싶어서?”

“응,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지원병 이야기 듣고 결심했어. 나도 지원병이 되어 일본을 위해 싸울 거야.”

“.....”

학주는 목이 메어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 용주도 아버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아버지의 딱딱한 껍질에 부딪쳐

34) 이상경, 앞의 논문, 139쪽.

35) 정인택, 위의 작품, 146쪽.

뒹겨 나갈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껍질을 깨부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는 그 껍질을 등에 진 채로 그 무게에 눌러 부셔질 것이다. 대역 죄인이 눈앞에 또 하나 있었다.<sup>36)</sup>

여기에 오면 학주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시즈에와의 결혼을 유지하려는 것은 시즈에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즈에와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큰 이상으로서 내선일체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 ‘대역죄’임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낡은 것이고 새로운 시대(대동아공영권)를 살아가는 데는 무거운 껍질에 지나지 않으며, 그 껍질은 무게에 눌러 머지않아 부셔질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선의 전통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낡은 껍질로 인식하면서 조선인이 지니고 있는 낡은 껍질을 스스로 부정하고 벗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내지인의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내선결혼은 물론 지원병으로 전장에 나가므로써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진정한 황국신민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3. 계몽주체의 부재와 내선결혼의 실패

내선결혼이 실패로 끝나는 소설은 한설야의 「피(血)」와 「그림자(影)」,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薊の章)」이다. 이들 소설은 내선결혼이 이루어지는 소설과는 달리 식민지 남자와 제국 여성의 사랑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설야의 「피」와 「그림자」를 이상경은 “숙명적인 ‘피’의 이질성”에 바탕을 두고 식민주의에 협력을 거부한 작품<sup>37)</sup>으로 파악

36) 정인택, 위의 작품, 148쪽.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이 점은 일찍이 최재서의 지적<sup>38)</sup>처럼 내선결혼 소설이 아니다. 심진경 역시 한설야의 작품을 ‘식민주의에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규정한 이상경의 견해를 부정하면서, “한설야 소설의 회고적 형식은 현재를 은폐하거나 현재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는 부재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한설야 소설에서 이렇게 ‘현재/나/생활’은 ‘과거/여성/사랑’에 압도된다.”<sup>39)</sup>고 하여 실패한 사랑에 대한 회고적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괴」의 주인공 <나(김상)>는 이미 선전(鮮展)에 입선한 경력의 소유자로, 아내와 딸을 거느리고 있지만 생활에 대해 무능하여 처갓집에서 눈칫밥을 먹고사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동경으로 미술공부를 하러 가는 것은 일종의 도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는 당시 이미 딸을 둔 상태여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한 경성에서는 생활의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고학을 하게 되면 처갓집에서도 나의 무능을 그리 탓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도 구속이 가벼워질 것만 같았다.<sup>40)</sup>

이렇게 하여 동경의 스이후(翠風) 선생의 문하에 들어간다. 거기

37) 이상경, 앞의 논문.

38) “「괴」의 처음 몇 구절을 읽은 독자는 틀림없이 내선일체를 그린 소설이라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그러나 「괴」는 그렇게 이름 붙여 읽어야 할 작품이 아니다. 내지인 처녀에 대한 길은 짝사랑의 추억이다. 다만 그뿐인 작품이다. 그것을 공연히 시국 문제와 연결시켜 읽으면 불만과 분노조차 일어난다.” 石田耕人, 「文藝時評」, 『국민문학』 1942. 12. 52쪽.

39) 심진경, 앞의 논문, 179쪽.

40) 한설야, 「괴」, 김재용(외) 편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170쪽.

에서 선생의 수제자인 이소가이(磯貝)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지만 스이후 선생이 나의 그림을 보고 쇼토쿠태자 전람회에 출품해 보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 이후 나에게 마사코(眞佐子)가 호감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 마사코는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라 ‘신기루’이며, 동시에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마사코는 계몽의 대상도 아니며, 그녀로부터 차별을 받기는커녕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나>가 차별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나는 마사코의 청혼에 대하여 이미 결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거짓말의 효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는 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마사코에게 고백하였다.

고백을 해버리자 애매한 짐을 벗어버린 듯 마음이 가벼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마사코가 내 고백을 듣고도 마음의 행방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또한 동시에 마사코를 위해서 나 자신이 이제까지 일궈온 생활을 뿌리 채 바꾸리라는 결심도 있었다.

그러나 내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불순한 것인가를 마사코의 행동을 통해 확연히 깨달았다. 마사코는 그 후 내 하숙집에도 학원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sup>41)</sup>

여기에서 나와 마사코의 결혼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은 물론 <나>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마사코가 나를 좋아한다면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라도 결혼할 결심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사코가 결단을 보임으로써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4년 후 <나>가 조선의 운

41) 한설야, 같은 작품, 181쪽.

천장에서 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온 마사코를 만나서 아내와 헤어졌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헤어질 걸 그랬어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녀가 나에게 그림 한 점을 부탁하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주지만 그녀는 그림 값을 지불함으로써 나와 그녀의 관계가 애정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나는 “결혼해서 그녀를 잃는 것보다는 삼계(三界)까지 그녀를 쫓아 갈 수 있는 영혼을 갖고 싶다”고 하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마사코는 자신의 이러한 호의가 내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겠지만 결국 이번에는 그녀는 내게 고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았다. 괜찮다. 평생 고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타고났으니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sup>42)</sup>

위의 인용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는 나의 ‘고통’이란 결국 마사코와 결혼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라 할 수 있는데,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피’ 속에 있는 것”이라 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외부’란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적 차이나 아니면 일제의 지배정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내 피 속에 있는 것’이라 했을 때, 이를 민족적 차이로서 ‘피의 이질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질, 거짓말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성격을 두고 한 말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42) 한설야, 위의 작품, 186쪽.

그가 마사코가 청혼을 했을 때 “거짓말의 효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4년 후 마사코와 다시 만나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인간은 결국 불행해지는가 봅니다.”라는 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마사코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함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피」는 내선결혼을 거부한 소설이라거나 식민주의와 파시즘에 협력하지 않고 저항<sup>43)</sup>한 작품도 아니며, 내선일체의 논리를 피해나가는 전술적 글쓰기<sup>44)</sup>도 아니다. 이 작품은 지난 날 이루지 못한 내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회한을 그린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마사코에 대한 <나>의 태도이다. 내지 여성 “마사코의 잘 정돈된 얼굴, 나긋나긋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몸매, 형태는 있으나 향기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한 육체는 나같이 미친한 존재에게는 오히려 신기루에 불과했다.”(176쪽)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지여성/조선남성’, ‘완벽한 여성/미친한 남성’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나>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철저히 마사코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가 이소가이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마사코이고, 청혼을 하는 것도, <나>가 결혼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사코가 ‘마음의 행방’을 다른 쪽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사코가 결단을 보임으로써 사랑은 끝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체의 내선결혼이란 정책은 처음부터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몽과 차별로부터 탈출이라는 논리적 기반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 기반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한낱 내선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연애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자

43) 김재용(외 편역),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머리말.

44) 서경석, 「카프작가의 일본어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2003, 385쪽.

」 역시 「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난날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란 점에서 내선일체에 대한 거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작품은 당시 일제의 국책인 내선결혼을 중심서사로 하면서도 <나>는 ‘미천한 조선인’으로 계몽의 주체도 아니고 차별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려는 강한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실패에 이르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 작품은 일제의 국책에 동조한 작품은 아니지만,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재란 점에서 “주어진 여건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문학을 계속 견지해낸 작품”<sup>45)</sup>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효석 또한 「아자미의 장(薊の章)」을 통하여 내선인의 결혼 문제를 그려주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이상경은 “강한 기질을 가진 일본여성과 우유부단한 조선 남성의 기질의 차이로 화합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기질을 낳은 문화적, 경제적 요소가 있고 그것들 때문에 내선결혼은 요원하다는 상황인식을 읽을 수 있다.”<sup>46)</sup>고 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유진오의 지적<sup>47)</sup>처럼 내선결혼을 직접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효석은 「아자미의 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초록의 탑(綠の塔)」(1940)과 「봄의상」(1941)을 통하여 내선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들 작품 역시 「아자미의 장」처럼 내선결혼을 직접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김윤

45) 서경석, 앞의 논문, 387쪽.

46) 이상경, 앞의 논문, 151쪽.

47) “「아자미의 장」의 경우에도 「혈」의 경우에도, 이 ‘내산’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다 할 의미를 얻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모처럼 이런 체제를 취급할 바에는 더욱 깊숙이 풍속, 습관, 풍토와 정치적,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이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취급했어야 좋았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가?” 유진오, 『國民文學といふもの』, 『國民文學』, 1942. 11. 8쪽.

식은 “이효석의 작품에서는 창작의 모티브 자체가 미적 감각에 놓여 있어 어떤 역사의식이나 이데올로기적 내용도 끼어들 틈이 없다.”<sup>48)</sup>고 했다.

사실 「아자미의 장」은 “빨간 서양 엉겅퀴(薊)의 그 노여움을 품은 듯한 강렬한 생김새”와 카페 여급인 내지 여성 <아자미(阿佐美)>를 동일시<sup>49)</sup>하면서 지식인 남성 현과의 결혼이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작품의 서사 주체는 현이라기보다는 아자미다. 카페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현을 선택한 것도 그녀이고, 모든 의사결정 또한 그녀가 주도한다. 따라서 나는 “아자미 마음에 엉뚱한 변심이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저도 모르게 당황하는 건 노상 있는 일”<sup>50)</sup>이라 할 만큼 수동적인 자세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아자미가 정식 결혼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피가 현격히 다른 혼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과 장유의 서열에 따른 결혼을 강조하자, 고작 “케케묵은 짓거리”라고 비판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고작 돌아오는 길에 술이나 마시는 인물이다. 이와는 달리 아자미는 현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의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 애쓴다. 그녀는 현으로 하여금 마늘 먹는 것을 허용하고, 한복을 입고 외출할 때 “아자미는 ‘기모노’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옆으로 지나치는 같은 차림의 여자들과 같은 핏줄의 사람임을 절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의 의식 속에는 아자미가 일본

48)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76쪽 참조

49) 엉겅퀴의 일본어 ‘薊(あざみ)’와 주인공 ‘아자미(阿佐美)’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엉겅퀴’의 모양과 주인공을 동일시하여 제목을 <아자미의 장(薊の章)>이라 했다고 할 수 있다.

50) 이효석, 「아자미의 장」, 김병걸(편), 『친일문학작품선집』 I, 실천문학사, 1987, 219쪽. (이하 작품 텍스트는 이 번역집을 사용함.)

적인 것(기모노)에서 벗어나 조선의 문화(음식이나 옷)를 수용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일본=우월, 조선=열등이라는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자미가 한복을 입음으로써 다른 남성으로부터 희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자미는 현의 누이동생으로부터 온 편지를 통하여 집안에서 현의 혼인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읽고는 심한 다툼이 벌어진다. 또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현의 누이동생이 집안에서 현의 신부로 결정한 여희라는 여자를 대동하고 나타나자 아자미는 헤어질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아자미의 선언에 대하여 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누이동생과 여희를 돌려보내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리고 며칠 후 아자미는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고향인 구마모토(熊本)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 이곳까지 쫓아온다든지 하지는 제발 말아줘요. 곧 일어날 것이고 게다가 남 보기가 흉측할 테니까. 당신 일은 언제든 잊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전 꽤나 지쳐 있어요. 새 기운 차릴 때까지는 당신은 안 만날 생각이예요.<sup>51)</sup>

아자미의 편지를 받고 현은 “언젠가는 돌아 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과 아자미 사이에 운명은 어찌 될 것이며, 몇 번이나 파란을 넘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이처럼 「아자미의 장」은 표면적으로는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전통과 피의 차이)로 인한 내선결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불행의 원인은 우유부단한 현의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인택의 「껍질」과 비교되는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현에게 있어서

51) 이효석, 같은 작품, 233쪽.

아자미는 자신이 계몽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현에게는 민족적 차별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에게 있어서 아자미는 단순히 내지 여인이 아니라 빨간 서양 엉덩퀴로 표상되는 귀엽게 노여움을 품은 한 사람의 여인일 뿐이다.

#### IV. 결 론

지금까지 내선결혼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을 그들의 병참기지화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이름뿐인 ‘내선일체’가 아닌 ‘피의 결합’으로서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내선결혼을 하나의 정책으로 강력히 실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내지인과 조선인은 민도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내지인에게는 참된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인을 계몽하여 민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다. 이와는 달리 조선인은 내선일체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조선인은 스스로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고자 했다. 이처럼 일본인과 조선인은 서로 상반된 논리 위에서 내선일체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이의 실천으로 내선결혼을 추진했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논리는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광수의 「마음」에서 내지인 타케오와 조선인 석란의 결혼이 전자의 경우라면, 정인택의 「껍질」은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타케오는 석란을 비롯하여 그녀의 아버지 김

영준과 오빠 충식에게 지속적으로 내선일체의 필요성을 터무니없는 동조동근론을 앞세워 강조하면서 민족동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영준도 타케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고 석란과 김충식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을 조국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기 위해 술선수범한다. 따라서 타케오의 행위는 식민지인을 계몽하여 민족동화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내선결혼을 하고, 석란과 충식은 물론 김영준까지도 일본의 차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내선일체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선결혼이 이루어진다.

한편 「깎질」에서는 일본인 아내 시즈에는 착한 아내임에도 전통의 전통적 관습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아버지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 학주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시즈에와의 결혼을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내선일체를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로 대표되는 구세대의 가치관은 버려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세대는 전통적인 것을 버리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스스로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이 되어야 진정한 내선일체가 이루어지며, 그 때 비로소 진정한 황국신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한설야의 「피」와 「그림자」,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에서는 조선 남자와 내지 여성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내선결혼이 실패로 끝맺고 있다. 그것은 조선 남성들에게 있어서 내지 여성은 자신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동시에 그녀들은 모두 자상하고 포용심이 강하여 상대방인 조선인에 대하여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별로부터 탈출하여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다. 다만 그들은 기혼자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으로 그녀들의 사랑을 실현시

켜주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소설은 일제의 내선결혼 정책에 저항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이 아니라 단순히 시국적 소재를 취하여 내선 남녀의 애정을 그린 현실도피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 내선일체(Oneness of Korea and Japan),  
내선결혼(Marriage Between the Korean),  
이광수(Lee Kwang-Soo), 정인택(Jeong In-Taek),  
한설야(Han Seol-Ya), 이효석(Lee Hyo-Seok)

#### 참고문헌

- 강상중(임경덕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2004  
김용제, 「內鮮結婚我觀」, 『內鮮一體』, 창간호, 1940. 1.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保坂祐二,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分析』, J&C, 2002.  
서경석, 「카프작가의 일본어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2003,  
石田耕人(최재서), 「文藝時評」, 『국민문학』 1942. 12.  
신희교, 『일제말기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민족문학사연구』, 제28집, 2005.  
유진오, 「國民文學といふもの」, 『國民文學』, 1942. 11.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김재용(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현영섭,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連盟, 1939,

布袋敏博, 「일제말기 일본어소설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 政策』, 未來社, 1992

鈴木裕子, 『從軍慰安婦·內鮮結婚』, 未來社, 1992

鈴木隆史, 「戰時下の植民地」, 岩波講座, 『日本歴史』 21, 岩波書店, 1977

The Practice of Oneness of Korea and Japan and Novels  
on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ho, Jin-Ki

The imperialist Japan conducted ethnocide on Korean People through assimilation policy during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appeared in the oneness of Korea and Japan, and it was actualized through the change Korean's full name into Japanese pronunciation and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The change of Korean's name revealed the assimilation policy baldly. However,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was disguised under the pretext of fruit of personal love, internalizing the assimilation policy since a marriage basically supposes love.

Thus marriage of the Korean and Japanese was emphasized as a way of oneness of Korea and Japan, to promote that, novels on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were written. However, there were two angles on novels in this period. One is Japanese's point of view, and the other is Korean's point of view. Japanese thought that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was needed to awake Koreans from ignorance, to make them perfect Japanese. On the other hands, Koreans wanted to be real Japanese through marriage with Japanese, subscribing fully the policy for oneness of Korean and Japan, to avoid discrimination. The novels on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in this period clearly showed those two points of view.

In success stories of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love between a Japanese man and a Korean woman is main story based on assimilation policy. However, with a point of trying to escape from discrimination, love between a Korean man and a Japanese woman was described. We can see those two different cases in Lee Kwang Soo's novels, and we can see the later example in Jeong In Taek's novel. In case of a failure of marriag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the stories are all about the love between a Korean man and a Japanese woman. However, they were regarded as just a love story, only taking a topical motif, since there was no internal logic on the marriage in those stories. We can find this tendency in Han Seol Ya and Lee Hyo Seok's novels.

조진기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교수

주소: 706-0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65-17

전화번호: 017-501-4898

전자우편: [cjk@kyungnam.ac.kr](mailto:cjk@kyungnam.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29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